

목포시 8년만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

14개 노선 간선·지선 등 8개로 줄여 26일부터 3월3일까지 시범운행 노선권 사들여 7월부터 준공영제

목포시가 8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면서 오는 7월 준공영제 본격 시행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13일 목포시에 따르면 현재 14개인 시내버스 노선을 8개로 줄이는 개편 노선안을 마련해 다음 달 4일부터 정식 운행한다.

목포시는 3억1000만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노선 전면 개편과 준공영제 실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목포시는 우선 이달 26일부터 3월3일까지 시범운행을 하기로 했다. 앞서 목포시와 운수업체(태원여객·유진운수), 용역사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노선 시험운행을 했다.

목포 시내버스가 전면 개편된 건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목포시는 태원·유진운수가 보유한 노선권을 사들인 뒤 사업자를 구해 오는 7월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목포시는 중복되는 노선을 개선하고, 꺾인 노선을 직선화해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현재 14개인 시내버스 노선은 간선 3개, 지선 2개, 순환 3개 등 8개로 바뀐다.

공공형 버스의 남만버스(3대)와 시계 외 요금 버스(7대)는 일부 구간과 운행 횟수가 조정된다. 지난 2020년 6월 운영을 시작한 남만버스는 적자가 예상되지만 꼭 운행이 필요한 구간이나 대형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주요 거주지역과 간선도로를 10분 배차 간격으로 연결한다. 이를 위해 지선과 순환노선을 조정했다.

기존 영산로에 집중된 노선을 백내대로로 분산하고, 간선·지선·순환 노선별 기능을 명확하게 만들었다.



목포시가 다음 달 4일부터 14개의 시내버스 노선을 8개로 효율화하는 노선 개편안을 시행한다. 목포시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목포시 제공>

노선 기능에 맞는 노선번호를 부여하고, 이용자의 편의성과 교통의 효율성에 중점을 뒀다.

목포시는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운수업체와 운전기사가 참여한 가운데 노선개편 실사 검증을 벌였다.

7차례의 주민 설명회를 열어 노선 개편안에 대한 시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들었다.

목포시 공론화위원회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삼학도에 집중된 노선을 북항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목포해양대학교와 협의회 차고지 일부를 삼학도에서 목포해양대로 변경했다.

목포해양대에 차고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8600만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는 운수업체와 노선별 운행 간격, 기점부터 종점까지 거리, 운행횟수, 차량 대수 등 운행계통을 협의해 노선 안을 지난 8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신규 노선 번호에 대해서는 목포시 누리집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12일까

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수업체·전문 용역사와 노선 개편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준비를 마쳤다.

또 8명으로 구성된 노선개편 안내 전화 상담 센터(061-284-8572)를 운영하고, 주요 정류장에 하루 6명의 현장 안내 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목포시 모든 직원(하루 120명)은 출퇴근 시간대에 주요 정류장 30곳에서 현장 안내를 맡는다.

한편 지난 2021년 운수업체의 휴업 신청을 계기로 노선 개편과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공론화가 추진됐다. 지난해 공론화위원회는 노선 전면 개편을 권고했다.

김은미 목포시 대중교통과 주무관은 "시행 초기에는 다소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노선 개편은 목포형 대중교통 체계가동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과정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kwangju.co.kr

영암군 '군민 소통폰' 접수 민원 1000건 돌파

2022년 8월 개통...959건 처리

영암군은 지난 2022년 8월 개통한 '영암군민 언제나 소통폰' (010-9881-8572)에 접수된 민원이 1000건을 넘었다고 13일 밝혔다.

소통폰 전화번호에 있는 '8572'는 '바로처리'를 표현한 숫자이다.

민선 8기 영암군은 군민주권행정 대표 시책의 하나로 '목요 대화' '이동 군수실'과 함께 'Y(영암)-목소리'를 운영하고 있다.

소통폰은 2022년 8월 개통한 이후 생활 속 불편 민원부터 고충, 정책 제안 등을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 문자로 손쉽게 신청·해결하도록 돕고 있다.

민원 1000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생활민원 432건, 정주 여건 272건, 문화관광 102건, 일반행

정 114건, 기타 80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영암군은 이 중 95.9% 비중인 959건을 처리했다.

접수된 민원의 87%는 사흘 안에 해결했다. 지난해 별인 소통폰 고객만족도 평가에서는 군민 종합만족도 86.7점을 나타냈다.

신속성 부문이 94.8점으로 가장 높았고, 친절성 89.4점, 전반적 만족도 84.9점 등이 뒤를 이었다.

소통폰은 다양한 나이의 군민이 손쉽게 휴대전화로 민원을 전달할 수 있는 점이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민원 처리에 대한 감사·응원의 답장도 이어지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군민 누구나 언제든지 소통폰으로 의견을 보내주면 신속하게 답변하고, 군정에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진도군 한 어르신이가 보건소를 찾아 기억력 검사를 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60세 이상 연중 무료 치매조기검진

진도군 치매안심센터가 만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치매검진을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진도군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 치료를 위해 만 60세 이상의 군민을 대상으로 치매검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하면 중증 진행을 지연할 수 있고 증상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어 꾸준한 사전 검사가 중요하다.

치매조기검진은 1차 선별검사 후, 인지저하가 의심되면 2차 진단검사(협약병원인 해남우리병원 전문의 진료)와 3차 감별검사(뇌영상 촬영, 혈액 검사 등)를 거치게 된다.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는 진도군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감별검사는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본인 부담액 가운데 최대 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치매안심센터는 월 3만원 한도 약값(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기저귀 등의 조호물품 제공, 실종예방 서비스,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만 60세 이상 군민이라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찾아가는 조기검진은 진도군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

영광군 6개월간 월 50만원 취업활동수당 지원

영광군이 청년의 취·창업을 돕기 위해 6개월간 한 달 50만원의 '취업활동수당'을 지원한다.

영광군은 18~45세 청년 70명을 대상으로 '청년 취업활동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영광군에 살아온 청년이어야 한다.

최종 학력이 졸업·수료·중퇴이면서 미취업 상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생계 급여·실업급여 수급자, 중앙부처·다른 자치단체 유사 사업 참여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군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취업활동수당'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영광=김창현 기자 kcw@kwangju.co.kr

해남군 우슬저수지~우슬체육관 1km 맨발 황톳길 개통

땅끝 해남에 황토 맨발 산책길이 조성됐다.

해남군은 해남읍 해리의 해남군 보건소 뒤편 우슬저수지에서부터 시작해 우슬체육공원내 우슬체육관까지 기존 코스컨트리장을 리모델링해 산책로 약 1km 길이 황톳길을 조성했다고 13일 밝혔다.

황톳길 한쪽에는 아자매트를 깔아 신발을 신고도 산책할 수 있으며, 발을 닦는 세족장과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신발장도 마련했다.

새로 조성된 황톳길은 기존에도 우슬체육공원에서 훈련하고 있는 전문 운동인들은 물론 일반 군민들의 산책로로도 사랑받던 공간이다.

맨발 산책로가 조성됨으로써 최근 늘고 있는 맨발 걷기 동호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명현관 해남군은 "맨발걷기에 대한 전 국민적



해남군 1km 길이의 황톳길 맨발산책로.

관심이 높은 시점에 해남군에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맨발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돼 의미 있다"며 "이후 산책로 주변 공간에 잠깐 쉬면서

몸을 풀 수 있는 쉼터와 세족장을 추가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4년 2월호

2024년 1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외국인 5%' 다문화 동반 시대

- 2024년 '다문화 국가' 진입
- '다문화 가족' 김기중-호영미 부부
- 고려인의 역사와 삶, 문화가 살아있는 월곡동 고려인마을
- 님은듯 다른 듯, 다문화 '리틀 아시아' ACC 공간들

맛과 함께 나누 여행

마한 유물 천년 고도 술 이야기

클릭, 문화현장-신안 암태도, 자은도

섬사람들의 삶과 역사 새겨진 미술관과 핫플

호남의 누정①-광주 양파정

문인들의 교유 공간 소년운동의 태동지

문학 화제 - 2024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인터뷰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나만의 문학 키워질 것"

예향 초대석

30년 깊이 지닌 섬인문학자

김준

"섬·바다·갯벌, 그들이 나의 스승"

예향 창간 40주년, 남도투어②

추억과 온정이 수북이 전남의 전통시장

도시를 바꾼 아트투어리즘⑤

매년 180만 명 관람객 LA 폴 게티 뮤지엄의 명작 컬렉션

문학을 품은 건축물

예술, 자연, 과학이 섬세하게 만나는 공간 LG아트센터 서울

임의진 시인의 광주 속살 순례기 '변두리의 언저리'⑥

비엔날레·시립미술관, 그리고 김광석 미술관은 치료제이고 약이었다

예향이 만난 이 사람

광주 영화 소식 17호째 전해온 영화 잡지 '썬1980' 편집장 김수진

오동진의 '시네마 역사' ④

새해 영화 키워드 '시대정신'... 봉준호·박찬욱 누가 웃을까